

삼양사 사료BU

'챌린지 330 캠페인' 개시 회의 실시



삼양사 사료(BU장 강신우)는 지난 3월 22일 대전 소재 삼양사 중앙연구소에서 'Challenge 330 Campaign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신우 BU장은 “고객 마인드 실천, 솔루션 판매 시스템 강화, 기술혁신의 세가지 핵심과제를 기본으로 지식을 풀 가동하고 삼양인의 모든 열정으로 실행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는 영업활동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강신우 BU장은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만족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양사 비육우PM인 박용렬 부장은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1+등급 이상 출하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급육 프로그램 적용 및 출하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거기에 노력이 더해질 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육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에는 지역 부장을 대상으로 초음파기기 전문가인 김영직 박사를 초빙하여 “비육우 육질 초음파 진단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로 도입한 최신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사용방법과 영업사원들이 필드에서 사용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진테크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서 세미나 개최

(주) 중앙진테크에서는 지난 3월 19~23일까지 개최된 2007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 및 국내 우수의 홀스타인 품평회를 맞이하여 낙농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세계 우수 젖소정액 공급 업체인 ABS GLOBAL의 아시아 매니저인 Jay Weiker와 품평회 준비 전문가인 Steven Pavelski가 젖소개량과 더불어 품평회 출품 소 준비에 대한 전체적인 특별 지도를 가져 참석한 낙농인들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3월 26~28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GMS(Genetic Management System) 전문가인 Amy Kruth를 초빙하여, 현재 진행중인 여러 우수 목장을 대상으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궁극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내에 우수 정액 유전능력 전달시스템의 대중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유카스

우콜, 특허획득



유카스는 지난 3월15일 반추위 보호 콜린인 ‘우콜’이 특허(10-0698452)를 획득했다.

지난 해 6월 출시된 ‘우콜’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젖소목장과 비육우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오고 있는 우

콜은 주성분인 콜린이 젖소의 분만 후 생리적으로 형성되는 지방간증 예방과 특히 비육우의 비육말기 지방간증으로 인한 사료섭취량 감소, 증체 지연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동조물산(주)

랠리 로봇착유기 4호기 산내음 목장서 첫 착유 시작



L e l y
Astronaut
A3 로봇 착
유시스템 4
호기가 지
난 3월 14
일부터 경

기 북부에 위치한 산내음 목장(대표: 신동현)에서 가
동을 시작했다.

산내음 목장에서 로봇 착유시스템에서 착유를
시작하기 약 2주전부터 소들이 로봇에서 사료를 먹
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소들을 로봇에 자
연스럽게 방문하도록 유도, 소들이 로봇 착유시스템
에 빨리 친숙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그디어 3월 14일 본격적인 로봇 착유시스템 가동되
어 자연스럽게 첫 착유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Lely 로봇 착유시스템 아스트로넛 A3
는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착유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성사료(주)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 지난 3월 7일 안성
소재 궁전웨딩홀에서 안성지역 비육우 사양가 10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성지역을 담당하는 성용경 부장(우성사료 축우
담당)은 “안성지역의 육우(홀스타인) 사육 율이 전국



의 14.4%
에 해당된
다”며 “비
중이 매우
높을뿐 아
니라 등급
출현을 역

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부장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곳으로 경쟁우위
를 점하기 위해서는 장기비육을 통한 높은 지육율과
육질등급 향상을 통한 수익증가” 라는 해법을 제시
했다.

한편 엄기웅 대표(안성대리점)는 “안성지역 70개
농장의 사육특성을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송아
지의 입식 일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입식과열로 인한 송아지 공급 부족을 꼽고 있다. 문
제는 이렇게 입식 일령이 낮아질 경우 초기 증체율
이 떨어지며 결국 출하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
하며 입식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문진산 박사(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과)의 송아지설사병 및 호흡기질병 방제대
책 이란 주제의 강의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동운 본부장(우성사료 천안
지구) 은 안성지역이 육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비육우 대학을 개설하
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 '더(The)한우마루' 출시 회 의 개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3월 16일 천안
연암대 웰빙관에서 경기·충청권 한우 사양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THE) 한우마루' 소개 회의를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오비히로 대학의 고급육 전문가 히다리 히사시 명예교수의 특강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세계 축산업계의 변화와 고급육 생산 노하우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히다리 히사시 교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급증으로 소에게 급여해야 할 옥수수가 자동차에게 가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료곡물 쟁탈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세계 축산업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히다리 히사시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가축의 기본적인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이 떨어지는 소에게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과 질은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능력이 좋은 소라도 무엇을 어떻게 급여하느냐가 고급육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밑소를 선정할 때 체중보다 체형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육성기는 아직 소화기관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보다 골격과 소화기관을 발달시키기 위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중요하다”며 “육성기부터 비육전기까지 농후사료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얼마나 질 좋은 조사료를 급여하느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육기에는 근육 속 마블링 형성을 위해 비타민 A급여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비타민 C를 보충해 주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세계 축산업계는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후계자 육성이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성사료 오영석 부장은 이어 최고의 쇠고기 생산과 가축의 웰빙까지 고려해 출시한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 ‘더 한우마루’에 대해 소개했다.

오 부장은 “비육우 사료시장의 16년 연속 1위의 우성사료 고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오비히로 축산대학과 서울대학의 기술을 접목시켜 더 한우마루 제품과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며 “식물성 천연보호지방과 보호비타민 C를 특수 첨가해 지방 세포의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마블링이 섬세하게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천안연암대 축산 장학금 전달



(주)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2월 27일 천안연암대에 축산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축산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축산계열 김진구 학생을 비롯한 5명에게 총 2,500,000원 수여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후원 할 계획이다.

우성사료는 2005년부터 축산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명에게 10,000,000원을 지급했다.

우성사료 조성복이사(제3사업본부장/천안공장)는 인사말에서 축산의 밑거름이 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당부하고 우성사료는 앞으로도 산,학계간 협력체제를 이뤄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더욱더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